

자기부터 완성해야 일체제불의 골수 알 수 있어

29면에서 계속

모두 환인이 온다고, 그러니까 너는 빨리 나가거나 그래서 또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명을 받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벌써 죽어서 미래의 세계로 갔습니다. 그 미래의 세계에 가서 보니까 애당초에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각(覺)을 이룬 사람이라, 생시에도 그렇게 마음에 의해서 보고 듣고 하는 대로 미래의 세계로 전파를 보내고, 그러는 한편 미래의 세계에서도 그 사람이 있으면서 지배를 했던 말입니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야 할 텐데, 이 악에서 볼 때는 그 여자를 꼭 죽여야만 율황상제가 또 지배를 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를 죽이려고, 그 여자를

높은 도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선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선의 주인공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어지러운 세상이 되니 이 몸뚱이 흑성이 많이 죽게 되고 살기가 극난해지죠. 불안을 조성하고 방향을 조성하고 또 싸움을 조성하고, 그러면 세상만사가 어지러워서 지구도 그렇고 모두 소멸되는 그런 작전이죠. 악이 지배를 하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그거를 풀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각자 너무 알아야만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을 알아야만 내가 그렇게 지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앉아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미래의 세계와 과거의 정신세계와 같이 한자리를 하고 돌아가니까, 너 나가 없이 같이 한마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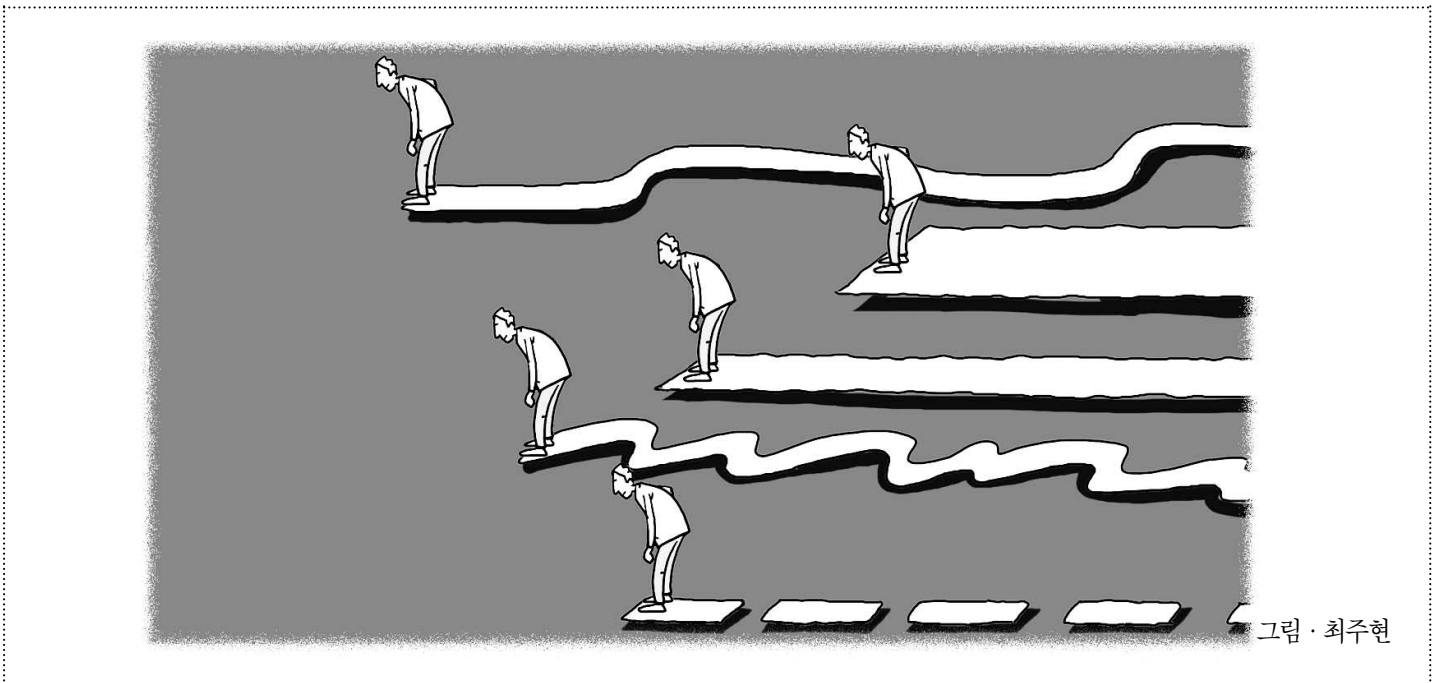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보배가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냥 부드럽고 편안하게 웃으면서 사세요!

택해야만 그 영혼을 날을 수 있고, 배를 빌려야 하니까. 그래서 여자를 죽이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선에서 그걸 알고선 또 이쪽으로 구하려 보냈습니다. 미래의 세계에서, 즉 말하자면 정신세계에서 이 여자를 보호하고 싶어서 된다는 뜻을 청했습니다. 내가 지금 급하니 당신의 그 전자의 아들의 뜻을 바로 이리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 그 여자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또 낳아 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이 세상을 간파했습니다. 보면서 들으면서 또 이 누진(漸進)으로서 결정을 내리면서 이 세상을 두루 살피고 또 연방 그렇게 살피는 동시에 한 찰나에 과거와 미래를 드나드니 여기 가만히 앉아서 지배를 했다 이 소립니다. 그것이 부처님 세계의 한자리의 도리, 아주 차원

몽쳐서 돌아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악을 전부 선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걸 음광로에 다 넣으면 세 쇠가 아주 다양하게 나가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악도 선도 그렇게 다 놓아라 하신 반면에 인연이 없는 증생은 어찌 할 수 없느냐. 하신 것은 자기가 마음을 잘못 내서 저절로 독사 소굴에 태어나는 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이 자리에 있고 천당도 이 자리에 있고, 편안하게 자유 세상을 보내는 것도 이 자리에 있고, 부처도 이 자리에 있고 증생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재도 공했으니까 없다 한 그 뜻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와 과거와 모

든 것을 한데 합쳐서 세상을 똑바로 이끌어 가기 위한 방편이자 실천이죠. 여러분에게 얘기했으니 가 이제부터 마음내고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몫이니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문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못사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지만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죽을 수도 없는 것이고 죽는다고 해결이 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못살고 가난하고 못나고 이런 게 억울하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못사는 뭐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마시고요, 못난 것도 한 찰나고 짝난 것도 한 찰나고 그런 걸 다 그저 묵살시키고 이 도리를 배우는 데 전념을 다하세요. 인연가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래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이 주장자에 사탕같이 썩은 것 하나씩 다 들었더라는 거예요. 다 들고 들어가야만 한자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기를 쓰고 증득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렇게 애를 쓰면 오히려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애를 쓰지도 말고 애를 안 쓰지도 말고, 그냥 생활하는 데서 여하게 돼 가는 대로 '이것이 바로 내 한마음, 이 한마음 의식, 한마음으로 주인공, 주장자 이것이 자성 본래불(自性本來佛)이니'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 나가고 있지 않나, 이끌어 주고 있지 않나. 그런데 내가 뭐 걱정이야, 보배가 나한테 있는데.' 이러하고선 부도럽게 편안하게 그냥 웃으면서 사세요.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오늘까지는 사교를 심어

야 한다는 말이 있죠? 이따가 요 시간 지나면 내가 저 아래 나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거 겁내고 살아 본 예가 한 번도 없어요. 이따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할 일은 꼭 해야 되니까요. 뭘 그걸 두렵게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 하나 버리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내가 살아, 내가...' 이러니까 그냥 두렵고 모두가 그렇지, 내가 한다는 게 불지 않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예전에 잠깐만 그름밤에 길을 가는데, 글썽이 내 마음의 스승이 도깨비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춘천 골짜기를 내려가는 쪽으로 거길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고, 내가 어차피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놈의 거 뭐 그거 두려워?' 다 외라! 뭐가 있다면 그 외라! 그랬더니 가다가 보니까 글썽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 목신이 있는 겁니다. 아, 인사를 꼭듯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벗이 돼서 좋아서 말입니다. 나도 그 밑에 앉아서 혼자 심하게 웃고 혼자 중얼거렸으니, 누가 봤더라면 '저 사람 미쳤군.'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아주 미친 사람 같은데 어떻게 신중에 올라왔을까?' 그랬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밤에 산비둘기 울음소리, 부엉이 울음소리, 능생이 울음소리, 새소리! 얼마나 좋았는지 친구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 가다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야!' 그러고 그냥 싱긋이 웃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그게 다 친구들이고 벗이였어요. 도반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같이 말할 수 있는, 그 뜻을 전달하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리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미래 세계에 그 지배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한마음 부처가 되기 위해 지금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

분이 지배인이죠. 그리고 지배인이 한자리 한마음으로 하는 거고, '부처는 하나다'라고 하는 건 부처가 없기 때문에 부처라는 그 용어를 붙여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할 때에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저거 할 때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처가 없는 게 부처다 이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죽지 않는다면 죽은 세상을 어떻게 맞볼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반쯤 죽는 게 아니라 아주 죽는다면 생신이 될 것입니다. 아주 죽는다면 다시 태어날 것이고 아주 죽지 못한다면 고통을 길게 하고 길게 아마 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판(理判)이다 사판(事判)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틀이 아닌 까닭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이판사판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죽을 것이고 저래도 죽을 것인데 살면 얼마 더 살 일도 그렇게 애를 써야 하죠? 몸으로 죽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마음이 죽는다면 몸도 항상 고개가 숙여지고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부드러운 말을 해 줄 수 있고, 남들을 이익하게 해 줄 수 있고, 일체 만법에 걸림이 없이 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나는 이따가 죽든 내일 죽든 그런 건 상관없으니 나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 하는 대로요. 죽든 살든, 그것을 배우세요. 내가 죽든 살든 이따가 죽든 이따가 없든 그러는 그런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가 있다면 가루가 되더라도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없으니까 가루도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여러분이 집에서나 나가서나 일하면서나 항상 평상사가 그냥 참선이며 마음 편안하고 넉넉하면 좌선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6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최첨단 "원적외선 복시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고
전기온풍난방을 생각하고
기름보일러를 생각하고계셨다면 (난방비 50% 절감)
(난방비 70% 절감)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시열 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주세요.

◆ 일간난방비 비교표 ◆ **실내방 10평 기준** * 하루 10시간 사용 * 2005.12월 기준

구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난방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m ³	66.8원/kw	1250원/m ³	1000원/l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월)	588kw	1650kw	124m ³	1569kw	124m ³	182l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182,000원
단가차수	100	155	202	267	3950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없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령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 **유사물에 주의하십시오**

20평 난방에 (1100W/24시간) 시공합니다 (연료비 50-75% 절감)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쿠사 제품) 만들 취급합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전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간(肝)

간 지방간
간 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산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도중 응담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생체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미를 통중 (민속농원)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원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원(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원의원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들과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원(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원(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환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원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무리가 오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계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르신 분

윤량원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